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히든 트레저

자취를 감추었다가 다시 발견된 걸작: '잃어버린' 세 가지 그림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

예거 르쿨트르는 현대미술계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세 명의 거장, 귀스타브 쿠르베와 빈센트 반 고흐, 구스타프 클림트가 남긴 작품을 기념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히든 트레저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세 가지 타임피스에는 리베르소 시계 케이스 뒷면에 세 거장의 작품을 그랑 퓨 에나멜로 생생히 재현합니다.

귀스타브 쿠르베의 사실주의를 시작으로 반 고흐의 후기 인상주의 그리고 구스타프 클림트와 비엔나 분리파의 표현주의와 실험적 정신까지 서양 미술사에 방점을 찍은 대표작들에는 아직 들려주지 못한 매혹적인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발견된 그림들은 한 편의 소설이나 스릴러 영화에 어울릴 법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귀스타브 쿠르베 - *View of Lake Léman*(1876 년작)

19세기 사실주의와 사회 운동에 적극 앞장서 온 귀스타브 쿠르베는 1873년 고국인 프랑스에서 추방당한 후 스위스 레만 호수(제네바 호수)의 브베(Vevey) 지역 근처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덩 뒤 미디(Dents du Midi) 산맥을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해안가의 전경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가 생의 마지막 해에 남긴 그림은 찬란히 빛나는 푸른 하늘빛 호수 위로 구름과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통해 드넓게 펼쳐진 황홀한 풍경과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귀스타브 쿠르베가 사망한 지 15년이 흐른 1890년대 초, 노르망디 그랑빌의 한 주민이 쿠르베가 그린 다른 그림 두 점과 함께 *View of Lake Léman* 을 현지의 비외 그랑빌 미술관(Musée du Vieux Granville)에 기증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림들은 보관함으로 옮겨졌고 70년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던 1995년, 세 점의 그림 모두 위작이거나 화가가 잘못 알려졌다는 전문가의 판단으로 인해 다시 한번 불명예를 겪어야 했지만 2015년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미술관 역사와 관련된 문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큐레이터는 진품 감정을 받기로 결정하고 쿠르베 전문가인 프랑스 박물관(Musées de France)의 브루노 모탱에게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광범위한 연구를 마친 브루노 모탱은 2017년 호수 풍경을 담은 그림은 쿠르베의 작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 *Sunset at Montmajour*(1888년작)

1888년 프랑스 남부에 터를 잡은 반 고흐는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화폭에 담아내려는 시도를 거듭하면서 성숙한 예술가로 성장하는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888년 7월 5일 반 고흐는 남동생인 테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제, 해 질 녘에 곳곳에 바위가 놓여 있는 황무지에서 시간을 보냈어. 그곳에는 작고 곧지 않은 오크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언덕 위 폐허와 호밀 밭이 펼쳐져 있었지... 수풀과 대지 위로는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듯이 내리쬐더라... 난 그 모습을 계속해서 되새겼어..."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었지만 반 고흐가 설명한 그림인 *Sunset at Montmajour* 는 2013년이 되어서야 겨우 진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림은 60년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가 짧게 모습을 드러낸 후 다시 증적을 감췄습니다.

1908년, 노르웨이 출신의 기업가이자 수집가인 크리스티안 니콜라이 무스타드는 파리의 중개인을 통해 그림을 입수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무스타드의 지인이었으며 19세기 미술에 조예가 깊었던 스웨덴 주재 프랑스 대사가 그림을 가품이라고 일축하자 몹시 당황한 무스타드는 즉시 그림을 다락방으로 옮겼고 그림은 1970년, 그가 사망하기까지 다락방에서 잊혀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가짜로 치부되며 사라졌다가 1991년 암스테르담 소재 반 고흐 미술관에서 진품 감정을 추진하면서 잠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후 또다시 잊혀졌습니다. 그러던 2011년 미술관 전문가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그림을 재감정하는데 동의했고 화학 테스트를 거쳐 그림에 사용된 안료가 아를에서 반 고흐가 사용한



팔레트의 안료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침내 2년이 지난 2013년 9월, 진품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1928년 이후 새롭게 진품 인증을 받은 반 고흐의 첫 번째 그림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 *Portrait of a Lady*(1917년작)

*Portrait of a Lady*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유일한 '이중'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번 사라졌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1996년 예술적 안목을 지닌 학생이었던 클라우디아 마가가 실제로 이 그림이 1912년 이후 사라졌다고 믿어왔던 작품 위에 곧 다른 그림을 덧그린 작품이라는 사실을 간파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림에는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화폭에 담긴 젊은 여성은 클림트가 열렬히 사랑했고 그에게 수많은 영감을 안겨주었지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해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 여인의 자화상을 다른 여성의 그림으로 뒤덮었습니다.

1997년 2월, 특별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아첸차 소재 리치 오디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던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1925년 수집가 주세페 리치 오디가 구매한 이후 미술관에서 전시해오던 작품을 도난당한 것입니다. 액자가 미술관 지붕에 버려져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볼 때 천장을 통해 그림을 탈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천장에 생긴 구멍은 액자가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작았기 때문에 단순한 유인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수년간 여러 차례 위작이 나타났지만 원본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번은 프랑스 국경에서 압수된, 이탈리아의 전직 수상인 베티노 크락시 앞으로 보내는 소포에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그후로부터 2019년 12월, 어느 정원사가 미술관 외벽에서 덩굴을 정리하는 도중 금속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금속판 안에서 사라진 그림이 담긴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발견되었고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품 판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원본 그림은 실제로는 정교하게 계획된 내부 작업을 거쳐 이미 몇 달 전에 도난당한 상태였으며, 원본이라고 믿었던 1997년에 도난당한 그림은 가품이었다고 기소를 면제받은 그림 도둑이 진술했습니다. 전시회를 방문한 전문가들이 그림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미술관 내부에 있는 공범이 기소되는 일을 막기 위해 위조된 그림을 훔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벽에 원본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난 직후부터 벽에 숨겨져 있었다기에는 그림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돌려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언제 그림을 돌려주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많은 점들이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 모델이 되었습니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2021년, 90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